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소중한 수자원의 이용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게 했으며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게 했다. 물의 이용을 위해 용수로를 만들고 정수장을 설치해 물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산림녹화(山林綠化)로 수자원을 보호하려고 사방공사 사업을 추진해 벌거숭이 산이 없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22조 원을 들여 16개의 보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이용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물의 이용에 창의력이 없어 설치된 보를 해체하자는 논의를 했었다. 하늘에서 빗물로 내려온 수자원은 이용하지 않으면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정치지도자는 미래를 보고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50년 만의 가뭄으로 전 국토가 메마르고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농도인 전남도 예외가 아니며, 물 부족으로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역대 통치자가 수자원 보호와 이용에 힘썼기에 모내기를 적기에 이양(移秧)했으며 용수로를 통해 저장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강수량은 3.4mm로 평년(1991년~2020년) 5월 강수량 111.7mm의 3% 수준이다. 지난 1973년 이자 박정희 대통령이다.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의 4대강 유역에

도 247.4mm로 평년 505.8mm에 비해 50%도 안 된다. 5년 전인 지난 2017년 6월에도 100년 만의 가뭄으로 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또다시 5년 만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언론에서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과 가뭄 극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바다를 드러낸 저수지나 하천 상태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이제는 50년 만의 가뭄, 100년 만의 가뭄 또는 팔십 평생 처음 보는 가뭄 등 이러한 표현이 일상화되는 듯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가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기에 수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영산강 상류에는 장성댐 나주댐 광주댐 담양댐의 4개 댐이 있어 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승촌보에는 600만 톤 죽산보에는 1천600만 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

가뭄에도 영산강에 인접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인 함평, 무안, 영암, 해남, 강진군 일부 지역은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영산호가 있기 때문이다. 영산호는 지난 1981년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2단계)으로 설치된 담수호로서 2억 5천300만 톤의 영산강 물을 저장하고 있다.

또한 영산호는 폭 150m, 길이 5

천620m의 연결수로로 통해 지난 1993년에 완공된 영암호(2억4천 500만 톤)와 연결돼 있으며, 영암호도 최대폭 70m, 길이 9천320m의 수로로 지난 1996년에 완공한 금호호(1억3천300만 톤)와 연결돼 있다.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의 3개의 담수호는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호수로서 총저수량은 6억 3천100만 톤에 달한다.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농가나 대불공단에 물 걱정 없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영산강과 영암호, 금호호 등이 있기 가능하다.

영산강을 따라 내려오는 강물을 승촌보 죽산보와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에서 저류해 급변과 같이 가뭄으로 대지가 마르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을 때, 생명의 강인 영산강은 전남 서남해안의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싹을 틔움으로써 살아있는 강임을 증명하고 있다.

물 부족국에서 사는 우리는 물을 아껴쓰고 소중한 수자원을 잘 보호해서 저장하고 양수장과 용수로를 만들어 저장된 물이 농업용수로 안정적인 공급이 되게 해결책 없이 영농할 수 있는 선진 농업국을 만들어야 하며, 저장된 물은 창의적으로 관리해 녹조현상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수자원(水資源)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모아 이용하는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우리 역사상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을 창의적으로 잘한 통치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영산강 한강 낙동강 금강의 4대강 유역에

독자기고

시민의 삶,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정준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민에게 안도감을 줌과 동시에 삶의 질 및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의 현장 투입을 통해 공중화장실 여성칸에서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CCTV 등 무인방범시설 신설, 노후 가로등 미보안등 교체, 로고젝터 설치 등의 환경 개선으로 예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를 위한 민·경 합동순찰대인 'Silver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과 경찰의 안전디딤돌인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도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도 치안행정-자치행정 간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목포경찰서는 각 기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을 넘어 행복하게 변화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속에 경찰의 선제적·예방적 활동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치안현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범죄예방이란 범죄취약지 등 불안요인을 진단해 범죄 발생의 징후를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범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와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목포경찰서는 변화된 범죄예방 패러다임에 따라 경찰활동의 축을 기존 '검거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 나가고 있다. 목포시·신안군 CCTV 관제센터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범죄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효율적인 범죄 예방수단인 CCTV에 중점을 두고 한국전력,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취약지점에 자위방범CCTV를 설치해 시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이기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사장	기백관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브로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